의미생성행로의 층위 전환 문제 연구*

송치만**

Ⅰ. 서론

파리학파 기호학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 눈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의미생성행로라 할 수 있다. 심층 층위에서 표층 층위에 이르는 과정은 하나의 조직체와 같아서 뿌리부터 나뭇잎까지 연결되어있는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모델은 의미의 심층부에서 표층부까지 그 생성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의미생성행로로 대변되는 파리학파의 기호학은 이론의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언급되고 있다. 단순하게 기호사각형이나 행위소 모형만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고 의미생성행로라는 거시적 구조를 전체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응용 수준이 어떠하든 간에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미생성행로를 이해하고 그것을 응용하기 위해서는 행로에 내재하고 하고 있는 '전환'conversion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생성행로의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전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332-2010-1-A00166-과제번호).
**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의미생성행로의 개념을 정리할 때 언제나 하향적 분석과 상향적 기획 과정을 염두에 둔다. 분석 과정에서 층위간의 의미론적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텍스트 이해의 암초를 제공할 뿐이다. 기획 과정에서 역시 텍스트 생산의 일관성은 전환과정의 정확한 인지를 통해서 보장될 수 있을 뿐이다.

그레마스Algirdas Julien Greimas가 1966년『구조론적 의미론Sémantique structurale』[1]을 발표한 이후에 파리 학파의 기호학은 의미생성행로의 완성을 위한 여정을 이어 오고 있다. 기호학이 의미의 생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의미생성행로의 이론적 고찰은 그레마스 학파의 중심적인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층위로 구성된 생성적 구조를 갖는다는 생래적 속성은 전환의 문제를 개입 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의미생성행로를 구성하는 각 층위 간의 의미론적 일관성이 보장되는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전환의 개념이다. 이는 의미론적 균형뿐만 아니라 층위를 거치면서 확보되는 의미의 풍요로움의 근거 역시 설명한다.

한 가지 주의 할 점은 초기 이론이 제시하는 의미생성행로는 수직적 측면과 수평적 측면의 전환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관심이 수직적 차원의 전환에 집중하고 있지만 수평적 차원의 전환 역시 의미생성행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의미 결정이라는 것은 의미적 측면과 통사적 측면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차적인 관심을 수직적 전환에 집중하고자 한다. 중요성의 문제보다는 수직적 전환의 문제를 일차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수평적 전환의 문제를 후속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그레마스의 초기 이론을 검토하면서 의미생성행로의 틀 안에서 전환의 개념을 한정할 것이다. 이어서 개념의 발전적

1) Algirdas Julien Greimas, *Sémantique structurale*, Paris, Larousse, 1966.

확장의 양상들을 추적하고자 한다. 프티토Jean Petitot, 브란트Per Aage Brandt, 퐁타니유Jacques Fontanille의 제안을 바탕으로 생성행로의 발전적 확장을 검토할 것이다.

프티토는 위상학적 구상을 가지고 수직적 전환과 수평적 전환을 다루고 있다. 브란트는 프티토와 마찬가지로 파국이론의 토대위에서 전환의 개념을 다루지만 기호 구성 차원에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 연구를 좀 더 풍요롭게 할 것이다. 퐁타니유는 그레마스 이론을 가장 충실하게 계승한 이론가로서 생성행로에서 심층층위에 선행하는 긴장적 공간을 제안한다. 퐁타니유는 전환과 소환의 개념을 분리하여 층위간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Ⅱ. 의미생성행로와 전환

의미생성행로는 의미가 구성되고 풍부해지는 역동적인 과정을 담고 있다. 이 과정은 의미의 등가성과 잉여라는 중요한 개념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층위 간에 의미의 등가성이 유지되면서 층위 전환을 통해 의미는 점점 풍요로워진다는 것이다. 여러 층위가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전환의 개념을 통해 모델의 일관성과 통합적 분석력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관적인 판단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초기 이론의 틀 안에서 층위간의 전환의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제시하고자 한다.[2)]

그레마스와 쿠르테스Joseph Courtés가 제시한 의미생성행로의 심층에

2) 전환의 개념을 의미생성행로의 틀 안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행로의 자세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이미 여러 이론가들이 개진하였으므로 우리는 본격적으로 전환의 개념에 천착하기로 한다. 의미생성행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Algirdas Julien Greimas et Joseph Courtés,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Paris, Hachette, tome 1: 1979, pp.157-160.

서 먼저 기본 통사론이 서사 통사론으로 전환된다. 전자의 중심적 조작 개념은 기호 사각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호사각형에 투사된 각 항들은 서사 통사론에서 행위소간 접합 관계로 전환된다. 한 항이 모순항의 매개를 거쳐 질적 대립을 보이는 반대 항으로 변형되는 기호사각형의 역동적 양상은 서사 층위에서 연접에서 이접으로 또는 이접에서 연접으로의 변형과정으로 드러난다. 반대항의 대립이 주체와 반-주체 간에 일어나는 가치 추구 과정으로 조직된다는 것이다.

서사 통사론이 담화 통사론으로 전환되는 과정 역시 고려할 수 있다. 서사 층위의 변형이 구체적 인물, 시간, 공간속에서 표명된다. 담화 문법이라 할 수 있는 담화화discursivisation의 과정은 세 개의 하위 구성소를 갖는다: 행위자화actorialisation, 시간화temporalisation, 공간화spatialisation. 이 과정에서는 행위자가 구성되고 서사 층위에서 생성된 서사 프로그램이 기입될 시간적, 공간적 틀이 마련되는 것이다.[3)]

그레마스와 쿠르테스는 옐름슬레우Louis Hjelmslev의 전통에 따라 전환의 개념이 층위로 구성된 담화에서 포착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담화의 각 층위에 대한 자치적인 기술과 더불어 한 층위에서 다른 층위로의 이행을 문제 삼는다는 것이다.

층위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의미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은 각 층위가 항구적인 토픽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두 기호학자가 주장하는 등가성은 단순한 동일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각 층위에서 새로운 분절이 일어나면서 의미작용의 생성은 의미의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것이다.[4)] 하나의 주제가 단순하게 각 층위에서 고스란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잉여적 의미를 덧붙이면서 풍부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상식적인 차원으로 치부할 수 있으나 각 층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논리적 조작 과정을 고려하면 매우 체계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3) Algirdas Julien Greimas et Joseph Courtés, 1979, *Ibid,* pp.157-160.
4) Algirdas Julien Greimas et Joseph Courtés, 1979, *Ibid,* p.72.

두 기호학자는 전환 개념이 기호학 이론의 일관성을 시험하는 기본적인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의 규칙을 발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만 당시의 연구 수준을 고려하여 그 방향을 제안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이론가들이 제안한 내용을 단서로 하여 의미생성행로에서 발생하는 전환의 양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두 이론가의 초기 구상에서 전환의 개념은 층위간의 일관성 유지와 층위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의미의 풍부화라는 추상적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전환의 개념은 오히려 두 이론가의 제자들에 의해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기호학 사전 2의 구성적 성격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5] 이 책에서는 사전 1의 이론적 보충과 더불어 다양한 제안과 논점들이 개진되었다. 전환의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프티토와 질베르베르Claude Zilberberg가 이론적 보완을 시도하였다.[6]

우리는 질베르베르의 제안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여기서 질베르베르의 제안만을 살펴보는 것은 그가 그레마스와 쿠르테스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일관성과 풍부화의 개념에 방향성을 도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다른 이론가에 비해 생성행로의 틀 안에서 발전적 양상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베르베르는 양 방향적 전환을 제안한다. 층위1에서 층위2로의 진행은 전개의 논리가 작용하고 반대로 층위2에서 층위1로는 집중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층위1에서 층위2로 이행하면서 의미가 풍부해지는 반면 층위2에서 층위1로의 이행에서는 층위2의 특징적 기능소들이 잠재화된다. 층위2는 층위1이 전환된 결과이고 층위1은 층위2에 논리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속성 때문에 층위2를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것이다.[7] 결국 이러한 층위간의 상호작용, 또는 상호의존적 관계가 전환의 개

5) Algirdas Julien Greimas et Joseph Courtés,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Paris, Hachette, tome 2: 1986.
6) Algirdas Julien Greimas et Joseph Courtés, 1986, *Ibid,* pp.56-59.

념을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질베르베르의 제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서 제시한 하향적 분석과 상향적 기획의 이론적 근거를 일정 부분 확보하게 된다. 단지 그는 층위간의 논리적 관계만을 말할 뿐 구체적인 조작 개념은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론가들의 논의를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이제 등가성과 의미의 풍부화라는 다소 모호한 개념이 프티토, 브란트, 퐁타니유와 같은 후학들에 의해 어떻게 구체화되고 발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의미생성행로의 확장된 지형도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Ⅲ. 프티토의 파국이론[8]

프티토는 그레마스의 전환 개념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전환의 개념을 수평적 또는 수직적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구상하지 않고 좀 더 입체적인 구상을 펼친다.

프티토는 쌍대성에 의한 전환conversion par dualité과 형식적 전환conversion formelle의 구분을 제안하면서 초기 개념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9] 쌍대성에 의한 전환은 의미론적 분절의 형태론을 행위소간에 맺어지는 통사적 관계의 형태론으로 전환시킨다. 프티토는 이 전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기호사각형의 예를 들고 있다. 이때 전환은 기본 의미론의 의소sème와 행위소적 통사론의 접합jonction 사이에 존재하는 등가성에 의해 보장된다. s1/s2라는 이분적 의소범주는 s/o/-s라는 삼원적 행위소적 계열체로 전환되는 것이다.[10] 기호사각형위에서 분절되는 의소간의

7) Algirdas Julien Greimas et Joseph Courtés, 1986, *Ibid,* pp.58-59.
8) 프티토가 제안한 파국이론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Jean Petitot, *Morphogenèse du sens*, Paris, PUF, 1985.
9) Jean Petitot, "Aspects de la conversion", *Actes sémiotiques*, Bulletin, n° 24, Paris, CNRS, 1982.
10) Algirdas Julien Greimas et Joseph Courtés, 1986, *Op. cit,* pp.56-57.

대립이 서사층위에서 전개되기 위해서는 대립하는 두 주체와 그들의 추구대상인 객체 사이에 존재하는 삼원적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형식적 전환을 통해서는 다른 양상을 고려할 수 있다. 쌍대성의 전환이 계열체적 관계를 다루는 반면 형식적 전환은 통합체적 연쇄 양상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는 통사적 계열체를 서사프로그램의 통합체적 연쇄와 서사행로로 변형하는 전환이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 조작이 가능한데 먼저 기호사각형의 결성대립opposition privative을 상실이나 포획의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기호사각형의 질적 대립opposition qualitative을 주체와 반-주체간의 지배의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11] 우리는 여기서 기호사각형에 투사되는 통사적 계열체를 서사연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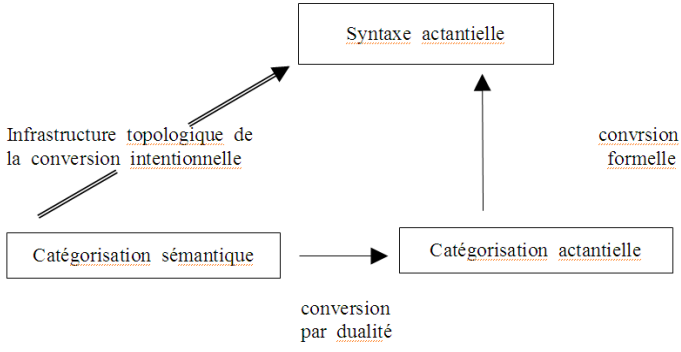
이러한 관찰로부터 프티토는 주체와 반-주체 간의 갈등은 원초적인 행위소적 관계를 맺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래서 주체가 객체를 향한 의도성의 관계는 주체와 반-주체 간에 존재하는 모방적 욕망과 연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동일한 가치 대상을 목표로 대립하는 두 주체의 서사 프로그램이 갈등하는 경우이므로 각각의 주체가 가치 대상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상대 주체를 겨냥하는 셈이다.

이러한 구상의 배경에는 르네 톰René Thom의 제안이 자리 잡고 있다. 프티토는 톰의 제안을 참조하여 서사적 변형의 관계를 생물학적 포식과 피식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가 주체와 객체의 관계와 상동성을 갖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원형적 관계의 개념이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 것은 그것의 확장 가능성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개념에 따라 관찰자observateur와 정보자informateur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도성의 개념이 인지적 주체 간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12] 인지적 차원의 행위소 사이에 존재

11) Algirdas Julien Greimas et Joseph Courtés, 1986, *Ibid,* p.57. 프티토가 사용하고 있는 결성대립은 그레마스의 메타언어를 따르자면 모순관계를 의미하고 질적 대립은 반대관계를 의미한다.

하는 지향성도 톰이 말한 생물학적 차원의 지향성과 상동화의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프티토의 개념을 바탕으로 전환의 전체적인 양상을 도식화 할 수 있다. 그는 의미 생성의 가장 기본 적인 결합 규칙인 통합체적, 계열체적 관계를 통해 전환의 개념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의미론을 조작의 통사론에 투사하면서 수평적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선전환préconversion이라 한다. 여기서는 심층의 의소들이 이산적인 단위들로 변형된다. 이러한 선전환과 층위 간의 수직적 전환이 결합되어 의도성의 전환conversion intentionnelle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프티토의 핵심적 논거이다. 행위소적 범주화catégorisation actantielle가 서사문법을 구성하는 행위소적 통사론syntaxe actantielle을 구성하는 것은 형식적 전환conversion formelle을 통해서이다. 이러한 전환의 관계 양상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13]



12) 퐁타니유는 관찰자와 정보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지적 차원의 상호작용에는 하이퍼지식이 개입한다고 주장한다. 객체가 주체에 저항하면서 반-주체로 변형되고 주체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과정을 고려하면 인지적 주체 간에 존재하는 지향성의 문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Jacques Fontanille, *Le savoir partagé*, Paris / Amsterdam / Philadelphia, Hadès -Benjamins, 1987.

13) Jean Petitot, 1982, *Op. cit,* p.6.

도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의미론적 범주는 쌍대성의 전환에 의해 행위소적 범주로 변형되고 형식적 전환에 의해 행위소적 통사론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의미론적 범주는 행위소적 통사론에 의도적 전환의 위상학적 토대infrastructure topologique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레마스가 제안한 의미생성 행로의 틀 안에서 보면 기호사각형이 서사 통사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정교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층 층위에서 의미론적 범주화가 일어나고 서사 층위에서 서사적 관계로 계열체적 교체가 발생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서사 층위에 존재하는 의도의 지향성 문제 역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서사 층위의 행위소적 통사론이 단순하게 심층층위로부터 발생하는 수직적 전환이라고 설명하기보다 다각적인 전환의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의미론적 범주화catégorisation sémantique와 행위소적 범주화간에 벌어지는 전환뿐만 아니라 두 범주화가 각각 행위소적 통사론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레마스가 수평적 전환과 수직적 전환을 분리하여 고려한 반면에 프티토는 그들의 관계를 좀 더 유기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의 설명 과정은 수학적 도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파국 이론théorie des catastrophes에 의지하고 있어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개념적 독창성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설명하는 복잡한 산식과 그래프가 설득력의 한계를 노정하는 것이다. 수학에서 차용한 다양한 설명 방식이 논리적 완결성은 보장할 수 있지만 설명적 용이성은 상당부분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Ⅳ. 브란트의 기호 구성 행로

덴마크의 기호학자 브란트 역시 파국이론을 바탕으로 전환의 개념을 제안한다. 그러나 그는 본격적으로 전환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기보다 기호 구성의 과정을 생성행로의 틀 안에서 설명하려 한다. 퍼스가 제안한

기호 유형 분류 기준을 구성 과정의 복잡성으로 이해하고 이를 생성행로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이다.[14] 퍼스는 표상체representamen가 대상체object와 맺는 관계 유형에 따라 도상, 지표, 상징 기호를 제안한다. 이는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브란트가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호의 내적 구성의 정도이다. 지표는 가장 약하게 그리고 상징은 가장 강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브란트는 이 과정이 의미의 증가와 진실의 상실을 동시에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의미론적으로 비어 있는 기호에서 가득 찬 기호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의미 증가의 양상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표는 지시적 속성을 갖고 있어 의미론적으로 비어있는 기호이고 상징은 자의적 의미가 부여된 기호 유형이기 때문에 의미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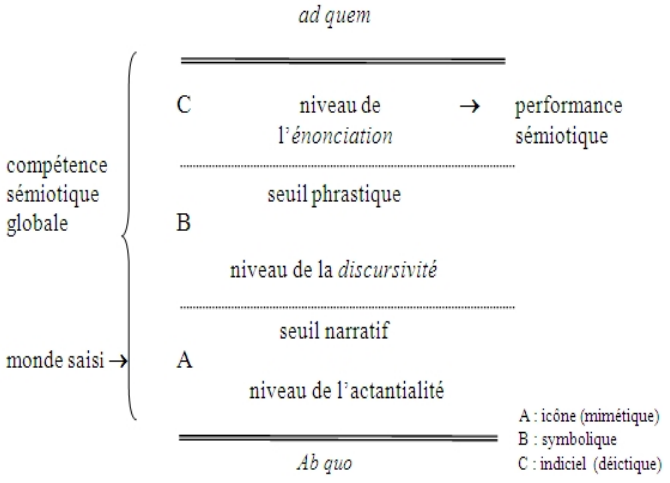
진실의 상실 측면에서 세 기호의 구성적 특성을 볼 수 있다. 지표는 존재의 기호이다. 즉 대상체와 표상체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성의 관계로 인해 진실의 효과를 담지하고 있다. 지표가 현실에서 찢겨져 나온 조각이라는 은유를 상기한다면 지표의 진실 효과를 더 잘 이해 할 수 있다. 이어서 그는 도상 기호가 어떤 존재의 가능성을 지시해준다는 점에 주목한다. 도상 기호가 대상체의 어떤 질적 속성을 재현한다는 특징을 고려한다면 브란트의 관심을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징 기호는 협약에 의해 구성된 자의적 기호이므로 의미 구성 과정은 복잡하지만 진실의 효과는 축소된다. 표상체가 대상체와 자의적 관계를 맺기 때문에 대상체에 대한 정보의 진실성은 의심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브란트는 이 과정을 몸짓의 예를 통해 다시 설명한다. 하나의 몸짓이 무언가를 지시하는 지표의 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더불어 무언가를 모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상기호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모방의 대상이 서사적 연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14) Per Aage Brandt, *Dynamique du sens*, Aarhus, Aarhus Universty Press, 1994, pp.12-17.

들어 춤은 몸짓이 상징 기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춤이란 시간과 공간에서 몸짓을 통해 음악적 구조를 생산해내는 독서의 대상이 되므로 상징적 속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브란트는 기호의 이러한 계층적 관계를 바탕으로 생성 행로를 재구성하고자 다음 표를 제시한다.[15]



A단계, 즉 행위소의 층위에서 세상의 포착은 즉각적인 드라마화의 형식을 갖는다. 이는 장소와 행위소로 분절된 시-공간의 조각들을 재현하는 행위소적 시나리오의 조직화를 통해 얻어진다. 재현의 모방적 양상 때문에 도상 기호의 속성을 갖는 층위라고 할 수 있다.

B단계에서 시-공간의 조각들은 더 복잡한 서사적 세계, 담화적으로 안정된 세계에 통합된다. 여기서는 시나리오의 단위들이 계급화 되어 계열체를 구성하고 단어의 분류가 문장적 경계를 통과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15) Per Aage Brandt, *Dynamique du sens*, Aarhus, Aarhus Universty Press, 1994, *Ibid,* p.14.

계급화와 분류화를 통한 상징적 단위들이 구축된다고 할 수 있다.

C단계, 발화의 층위에서 구조화된 의미는 실행의 세계의 공간-시간에 근거한 개별적인 지역성을 부여받는다. 발화 주체의 흔적이 개별화된다는 측면에서 지표 기호의 속성이 드러나는 층위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담화 층위에서 발화의 층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장적 경계를 통과하느냐 건너뛰느냐에 따라 어휘소 또는 몸짓이 표명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기호의 구성이 발화의 층위에 이르면서 생성적 구조를 전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화의 층위에서 의미 방식은 지표에 상응한다. 발화의 언표는 상징적 의미 방식을 거쳐서 행위소적 층위의 도상적 의미 방식을 감싸 안는다. 이는 지표, 도상, 상징의 관계를 살펴볼 때 이미 확인했던 사실이다.

브란트가 제안한 생성행로 역시 단계적 전개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레마스가 제안했던 의미의 풍부화라는 개념 역시 의미의 증가라는 형식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브란트는 기호 구성 과정이 의미의 증가뿐만 아니라 진실의 효과 문제와도 연관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후자의 문제는 발화의 층위를 가정하게 된다. 그레마스의 의미생성행로가 구조적으로 자족적인 성격을 가졌다면 브란트의 제안은 발화의 층위를 도입하면서 구조의 내적 일관성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의미의 등가성을 언급하기보다 진실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다. 그레마스가 배제한 발화의 문제를 브란트 다루고 있지만 전환의 개념은 다소 소홀하게 취급된다는 인상을 받는다. 우리는 이점을 고려하면서 퐁타니유의 구상을 검토할 것이다. 그는 또 다른 시각으로 발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Ⅴ. 퐁타니유의 전환과 소환

퐁타니유는 앞의 이론가들과 달리 기존 이론을 계승하여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그는 그레마스와 공저한 『정념의 기호학Sémiotique des passions』[16]에서 제안했던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퐁타니유의 제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속의 기호학sémiotique du continu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90년대 들어서면서 행위와 인지 차원의 기호학에 정념의 문제가 개입하기 시작한다. 이산화와 분절에서 생겨나는 의미 차이의 개념은 연속의 속성을 갖는 정념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 이러한 필요에서 연속의 기호학이 기존 이론을 보완하기 위해 태동한 것이다.

퐁타니유는 의미작용 이론의 일반 경제학의 변형을 시도할 것을 천명한다. 행위의 기호학에 단순하게 정념의 기호학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의 전체적인 지형도를 고려하여 그 간에 직면했던 이론적 한계나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퐁타니유가 종종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개념은 이전 이론의 토대 위에서 전개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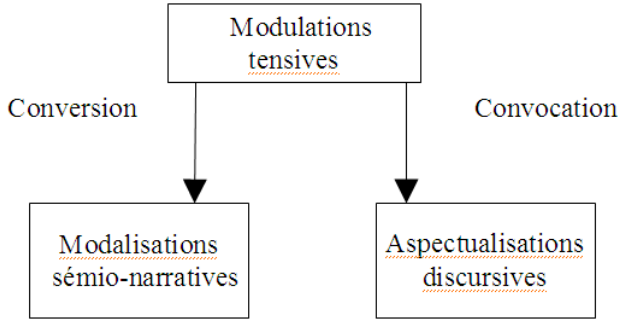
따라서 그는 연속의 기호학, 긴장적 공간espace tensif과 같은 개념이 도입된 의미생성행로를 재구성 한다. 우리는 의미생성행로의 재구성 과정에서 새롭게 구상된 전환의 개념에 주목하고자한다.

그는 긴장적 변조modulations tensives가 기호-서사적 양태화modalisations sémio-narratives로 전환되고 담화적 상화aspectualisations discursives로 소환convocation되는 과정을 설명한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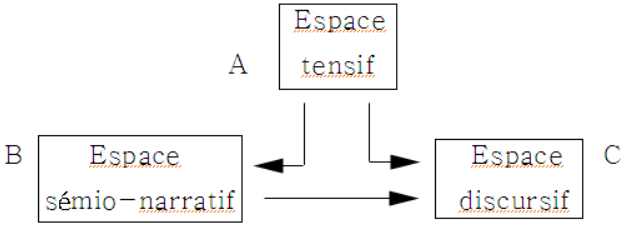
16) Algirdas Julien Greimas et Jacques Fontanille, *Sémiotique des passions*, Paris, Seuil, 1991.

17) Jacques Fontanille, *Sémiotique du visible. Des mondes de lumière*, Paris, PUF, 1995, p.21.

18) Jacques Fontanille, 1995, *Ibid,* p.15.



이러한 전환과 소환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미생성행로의 틀 안에서 이를 다룰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이 긴장적 공간, 기호-서사적 공간, 담화적 공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긴장적 공간이 기호-서사적 공간, 담화적 공간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다음과 같이 의미 생산에 참여한다는 것이다.[19]



긴장적 공간에서 기호-서사적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기본 의미의 범주화와 접합의 관계가 형성되는 이산화의 과정이 발생한다. 의미의 연속적 세계가 이산화되고 범주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퐁타니유는 기존이론에서 제기되었던 생성행로의 층위 간 전환이 기호-서사학적 공간에서 일

19) Jacques Fontanille, 1995, *Ibid,* p.16.

어난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층위 전환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미의 등가성 개념을 의미의 응집coagulation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산되어 있는 작은 입자가 큰 덩어리로 엉기는 것과 같은 현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담화적 공간은 발화행위를 통해 구조가 담화화 되는 공간이다. 퐁타니유는 소환이라는 메타언어를 사용하는데 담화의 소환이 긴장적 공간과 기호-서사적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기호-서사적 공간이 담화화 되는 것은 의미생성행로에서 이미 관찰 할 수 있는 바이지만 긴장적 공간이 매개 없이 담화적 공간으로 연동되는 것은 기존의 이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퐁타니유는 자신이 새롭게 제안한 의미생성의 지형도가 단선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가 그러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담화적 공간이 긴장적 공간과 기호-서사적 공간으로 이행되는 유형화typification의 과정을 상정하기 때문이다.

퐁타니유는 기존의 의미생성행로와 그의 구상이 차별화되는 것은 이산화, 전환, 소환, 유형화가 공통의 원칙에 의존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환과 유형화는 전도될 수 있는 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퐁타니유 이론의 독특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이론이 대부분 상향식 전환만을 고려했다면 퐁타니유는 하향식 유형화를 제안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담화적 공간에서는 단순하게 소환의 과정을 통해 의미가 표출되는 양상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형화를 통해 심층 구조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긴장적 분절의 양상마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호학의 인식론적 변화와 더불어 생성행로의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파리학파의 기호학이 발전해온 역사 속에서는 언제나 이론의 실천력을 검증하는 분석의 과정을 동반하였다. 퐁타니유의 제안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Ⅵ. 결론

그레마스 이후의 제안은 다양한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론적 관점의 차이뿐만 아니라 행로 구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론가들이 전환의 개념을 아직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프티토 제안의 경우에는 담화적 층위가 배제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결함을 갖는다. 기본 의미 구조가 서사 단위로 전환되는 양상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담화화의 과정을 배제한 행로는 완결성을 상실할 것이다. 브란트의 제안은 단순 기호 구성 차원으로 관심을 한정하고 있어 의미생성행로 자체에 대한 완전한 지형도를 그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면이 보인다. 퐁타니유의 제안에서는 서사 층위와 담화 층위 사이의 문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관계 제시는 있지만 구체적 조작 개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프티토와 브란트의 제안은 파국 이론이라는 설명 방식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해의 한계를 인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두 기호학자의 이론이 이후 학자들 사이에서 수용되는데 한계를 보였던 것은 위와 같은 문제에 부딪혀 이론적 차용에 소극적이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퐁타니유 제안의 경우에는 생성행로라는 거대한 구조의 틀 안에 긴장적 공간이라는 선층위를 도입하는 과정의 당위성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나열한 어려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레마스 이후 이론가들의 제안이 아무리 혁신적이라 할지라도 층위간의 등가성과 의미 풍부화라는 기본 전제위에서 논쟁이 전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간 생성행로에서 지적되었던 표층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브란트의 연구를 촉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념적 차원이 그레마스 기호학의 전체 지형도에 포함되면서 긴장적 층위의 도입

이 필요했기 때문에 퐁타니유의 작업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론의 위상학적 구상을 전개하려는 프티토 역시 기본적인 생성 행로의 틀을 명료하게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이들의 제안 중의 어느 하나가 명확하게 다른 것들을 포섭하여 이론적 완결성에 이를 수 없다 해도 의미 생성 행로는 양적으로 팽창하였고 각 층위간의 관계 역시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수준에 머문다는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발화의 문제와 전환의 다양한 방향을 인식하면서 텍스트를 해석하거나 기획하는 과정에서 좀 더 충실한 이론적 도구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Brandt Per Aage, *La charpente modale du sens*, Aarhus, Amsterdam et Aarhus University Presse, 1992.

Per Aage Brandt, *Dynamique du sens*, Aarhus, Aarhus Universty Press, 1994.

Fontanille Jacques, *Le savoir partagé*, Paris / Amsterdam / Philadelphia, Hadès -Benjamins, 1987.

Fontanille Jacques, *Sémiotique du visible. Des mondes de lumière*, Paris, PUF, 1995.

Fontanille Jacques et Zilberberg Claude, *Tension et signification*, Sprimont-Belgique, Mardaga, 1998.

Greimas Algirdas Julien, *Sémantique structurale*, Paris, Larousse, 1966.

Greimas Algirdas Julien et Courtés Joseph,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Paris, Hachette, 1979, rééd. 1993.

Greimas Algirdas Julien et Courtés Joseph,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Paris, Hachette, tome 2, 1986.

Greimas Algirdas Julien et Fontanille Jacques, *Sémiotique des passions*, Paris, Seuil, 1991.

Petitot Jean, "Aspects de la conversion", *Actes sémiotiques*, Bulletin, n° 24, Paris, CNRS, 1982.

Petitot Jean, "Sémiotique et théorie des catastrophes", *Actes sémiotiques*, Documents, n° 47-48, Paris, CNRS, 1983.

Petitot Jean, *Morphogenèse du sens*, Paris, PUF, 1985.

Tesnière Lucien, *E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 Paris, Klincksieck, 1982.

Une étude sur la conversion du parcours génératif

Song, Chi-Man

Depuis le début de cette étude, nous avons examiné le problème de la conversion en suivant les propositions des sémioticiens. Comme le remarque Greimas, l'elaboration des règles de la conversion peut garantir la cohérence à la théorie sémiotique. Donc, l'examen de la conversion peut nous permettre de mieux comprendre la structure de la sémiotique greimassienne. Dans notre étude, quelques propositions sont présentées des différents points de vue. Mais, malheureusement, dans l'état actuel de la théorie, on ne voit pas la résolution concrète du problème de la conversion.

D'abord, dans les propositions de Petitot, nous ne trouvons pas la discussion sur le niveau discursif. Le parcours génératif restera boiteuse, si l'on exclut ce niveau. Brandt reste à la constitution des signes. Les propositions de Fontanille résolvent les limites mais pas entièrement. L'agencement pluridimensionnel des espaces nous permet de comprendre les différents aspects du parcours génératif. Mais, il ne précise pas la conversion dans l'espace sémio-narratif. Dans son étude, ce problème peut être moins pertinent, mais cette absence fait éprouver un manque.

열쇠어 : 전환, 의미 생성 행로, 등가성, 수직적 전환, 수평적 전환
conversion, parcours génératif, éqivalence, conversion verticale, conversion horizontale

투고일: 2012.03.15 / 심사일: 2012.04.11 / 심사완료일: 2012.04.20